

독자와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 양상 연구

— 특목고 1학년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인식을 중심으로 —

서종훈*

<차 례>

- I. 들머리
- 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 III. 연구결과 및 교육상 의의
- IV. 마무리

I. 들머리

1. 연구목적

글을 매개로 독자와 필자는 의사소통한다. 여기에는 필히 의사소통 격차가 생긴다. 이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소통상의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의사소통의 격차는 반드시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격차의 근본 원인은 독자와 필자가 지니는 배경지식의 깊이와 폭에서부터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들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모국어 사용자들 사이일수록 낱말이나 문

*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사(경상대학교 강사)

장보다는 그 이상의 단위에서 형성되는 맥락 차원에서 그 격차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의미연결의 차원은 글에서 매우 복잡다기한 양상을 띠고 있어 그 정체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의미연결의 속성을 제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점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글의 맥락¹⁾ 혹은 의미연결이라는 것은 한낱 파악되기 어려운 모호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읽기, 쓰기 교육에서 주제 파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맥락 혹은 의미연결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취급되거나 혹은 다루어지더라도 피상적으로밖에 접근될 수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의미연결에 대한 하나의 실험조사를 구성하였다. 의미연결의 접근 방식으로는 문단 간 중심의미의 이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독자와 필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루었다. 이는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의 일부분을 응용하여 그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즉 본고는 전체글에서 맥락 혹은 의미연결(coherence)을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 측면을 통해 그 흐름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통사 중심의 기존 문단 이론을 담화 혹은 텍스트 중심에서 접근하여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²⁾ 이는 독자와 필자의 의미연결에 대

1) 맥락(context)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있다. 그 중에서도 할러데이와 핫산(1989)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맥락을 크게 네 가지로 범주화시켰다. 상황 맥락, 문화 맥락, 텍스트 간 맥락, 텍스트 내 맥락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네 가지 범주의 맥락 범위 중에서 텍스트 내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 텍스트 내 맥락은 글의 통사결속에 대한 응집성(cohesion), 의미연결에 대한 통일성(coherence)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영역이다. 즉 본고에서는 텍스트 내 맥락에서 주로 의미연결, 통일성(coherence)의 문제를 문단 간 의미 관계의 문제와 관련시켜 다룬다.

2) 그간 문단에 대한 연구는 규범적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이루어져 왔다. 가령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소주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의 문단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하나의 문단은 반드시 두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이른바 글쓰기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형화된 양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과연 문

한 인식의 차이와 시간 격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드러난다.

2. 선행연구

본고는 중심화 이론을 바탕으로 독자와 필자로 구분된 피험자들의 문단 중심의미 이동 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담화 혹은 텍스트의 맥락을 표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이는 응용 언어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기존의 다양한 연구물들과 연계될 수 있다.

중심화 이론과 관련해서는, Walker, Marilyn(1998)외의 연구가 가장 기본이 된다. 이 저서는 다양한 언어에 중심화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이론적 기능성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전산 언어학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언어가 가지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여겨진다.

아울러 국내 연구로는 박철우(2002)와 김미경(2003)을 들 수 있다.³⁾ 두

단이 위의 테두리 안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는 단위인지 의문스럽다. 문단은 사고 단위이다. 읽기와 쓰기에서 학습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형식론상의 단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단은 의미와 형식의 양면성을 모두 드러내는 단위이다.

최명환(2009, p.488)에서는 문장론의 관점이지만 그간 문단 연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문장 기술의 핵심은 사고 조직과 담문 구성이다. 우리 문장론이 문단 조직을 소홀히 다루었고, 담문 구성에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였다. (중략) 우리 글쓰기가 진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문단 조직과 담문 구성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앞으로 사고 조직과 담문 구성이 치밀한 문장론을 기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문단의 조직 문제를 전체글의 차원에서 다룬다. 즉 문단을 글의 맥락, 즉 의미연결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철저한 현장조사에 기대어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자 한다.

- 3) 중심화 이론(centering theory)은 담화 발화상으로 전개되는 개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인지와 관련된 단기 기억 처리의 결과를 언어 표현과 관련시켜 모형화한 것이다. 명사구 선택이 발화 문장들간의 응집성(cohesion)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를 담화구조 내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구성된 이론이다. 기본

연구 모두 민담 자료를 통해 중심화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전자는 중심 전이 과정을 통한 응집성(cohesion)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논항 생략을 중심화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Walker, Marilyn(1998)과 마찬가지로, 두 연구 역시 문장 이상으로 확대된 단위에서는 중심화 이론의 기능성만 언급하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문단과 관련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다룬 연구로는 손중동(1993)과 졸고(2008)을 들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학습자들의 문단 인식의 심리적 실재를 부각시킨 것으로, 전자는 국어와 영어의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문단의 전개 양상을 후자는 문단 간에 드러나는 위계적 측면을 다루고 있어 기존 문단 관련 연구와 차별적인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한정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실험연구이기 때문에 이론적 재구성의 유의미성에는 한계가 따른다.

아울러 맥락의 이론적 고찰에 대한 연구로는 김태자(1993), 이재기(2006), 황미향(2009) 등을, 국어교육과 관련된 담화·텍스트 언어학적 산출과 처리에 대한 연구로는 김지홍(2007, 2008)을 들 수 있다. 전자의 연구들은 맥락에 대한 문제를 표면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개략적인 언급으로만 그친 감이 있다. 후자의 연구들은 심리학의 이론적 토대에 바탕을 두고 언어 자각과 언어 산출·처리과 관련하여 의미연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적으로 세 가지 제약과 두 가지 규칙을 상정하고 있다. 자세한 이론적 개관은 김미경(2003, pp.34~37)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규칙 중에서 대명사의 발화 문장 간 전이 혹은 이동인 “연속(continue), 유보(retain), 완만한 이동(smooth-shift), 급격한 이동(rough-shift)”의 양상을 피험자들의 문단 간 중심이동 인식에 적용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가설

1. 연구방법

본고는 특목고 1학년 네 개 반 90여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모국어 관련 현장연구이다. 특목고 1학년 학습자들을 피험자로 선택한 것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문단 간 중심의 마⁴⁾ 이동에 대한 인식상의 판단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언어수행 과정상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⁵⁾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의 틀로 중심화 이론을 관련시킨 것은, 중심화 이론이 지니는 이론상의 단순성과 명확성 때문이다. 물론 중심화 이론의 토대는 통사 중심이며, 전산 언어학에서 발화의 개체와 관련된 화자의 단기기억 인지 양상을 다루는 분야이다.

문단 간 중심의미에 대한 인식은 전체글의 재구조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 학습자들의 단기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기억이나 그 이상의 배경지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장 간 중심 개체의 이동과 문단 간 중심의미의 이동에 대한 인식의 양상은 기억 용량에 따른 인식 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미의 이동 양상은 통사 혹은 담화 측면 모두에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중심화 이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4) 일반적으로 대다수 문단 관련 이론들에서는 하나의 문단에는 ‘소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구성된다고 상정한다. 본고에서는 ‘소주제’ 대신 ‘중심의미’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학습자들이 ‘소주제’라고 인지한다면, 어떤 명시적이고 분명한 주제 문장을 찾으려고 고집하여, 문단 간에 보다 역동적인 의미관계에 초점을 모으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5) 본 조사의 학습자들은 언어 영역과 관련된 능력 관련 시험에서 전국 편차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1~3등급 내에 들어간다. 본 지역의 인문계고 학습자들의 편차가 대략 1~8등급 사이에 분포를 이루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언어수행 수준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능력 관련 시험만으로 학습자들의 수준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와 있는 학습자들의 언어수행 수준 파악 도구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 능력 관련 시험자료이기 때문이다.

조사 내용은 <표 1>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 조사 내용

학습자들의 인지 기준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 인지 양상	중심의미 이동값
중심의미 이동	연속(continue)	1
	유보(retain)	2
	완만한 이동(smooth-shift)	3
	급격한 이동(rough-shift)	4

학습자들은 자신이 쓴 글이나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세울 것이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전체글을 구조적으로 재점검하고, 문단 간 중심의미의 이동에 대한 값을 매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조사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우선 학습자들은 입시 면접 대비 주장글 두 편을 작성하게 된다.⁶⁾ 주제는 기존의 면접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였다. 형식은 A용지 한 바닥에 5~8개 문단 정도로 구성하게 하였고, 기타 조건은 없었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에 대해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 양상을 구성하였다. 이는 필자 관점¹⁾의 입장에서 자신의 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문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어서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독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며, 최종적으로 재차 자신의 글을 필자 관점²⁾의 입장에서 다루게 된다. 구체적인 연구조사 과정은 <표 2>와 같다.

6) 본교의 학습자들은 2학년 때 조기진학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진학하게 되는 대학에서 면접을 주요한 입학 평가의 잣대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미리 1학년 학생들에게 예상 문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주장글을 써 보게 하였다.

〈표 2〉 연구조사 과정

단계	조사 영역	조사 기간
1	두 편의 글쓰기	2009.08.21~2009.08.26
2	필자 관점1의 문단 인식	2009.09.02~2009.09.04
3	독자 관점의 문단 인식	2009.09.14~2009.09.19
4	필자 관점2의 문단 인식	2009.09.23~2009.09.25

필자 관점1과 2는 자신의 글에 대하여 시간 격차를 두고 접근한 측면을 구분한 것이다. 한 학습자가 필자의 입장에서 두 편, 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반 학습자들의 여섯 편 글을 읽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독자와 필자 입장 모두에서,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 측면이 전체글의 맥락 혹은 의미연결과 심층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에서 몇몇 단계는 학생들의 언어수행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평가로 그 결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실제 평가에 포함되는 영역은 1단계를 제외한 2~4단계이다. 평가의 초점은 실제 글에 드러난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의 결과를 학습자들이 자신의 기준을 세워 얼마나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평가는 국어교육 전문가인 박사급 교사 2인이 학생들의 글과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결과를 건주어 가면서 내렸다. 평가의 초점은 필자 관점1과 2에서의 중심의미 이동에 근거나 이유의 적절성 제시 여부 및 내용상의 향상 여부, 필자 관점과 독자 관점의 일치 여부,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2. 연구가설

본고의 연구조사에는 두 가지 연구가설이 설정되었다. 두 가지 가설은 의미연결과 관련된 학습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 및 변화와 관련된다. 의미연결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처럼 그

속성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을 독자와 필자로 나누어, 독자와 필자간의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의 양상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의 변화도 고려하였다. 이 두 가지 조사는 의미연결에 대한 구체화 작업과 관련된다.

• 연구가설1 : 독자와 필자 간에는 공통된 의미연결 인식 양상이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의미연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표현의 결과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과 관련된다. 피험자인 학습자들은 독자와 필자로 구분되는데, 독자와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의미연결 인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 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필자로 상정된 학습자들은 5~8개 문단으로 구성된 전체글에서, 일정한 기준 하에 문단 간에 중심의미 이동값을 매길 것이다. 이는 1~4까지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값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제시되기보다는 전체글의 흐름, 즉 글의 내부 맥락인 의미연결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아울러 필자가 제시한 의미연결 이동값은 독자가 파악한 것과 유사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주제 하에 A4 한 바닥이라는 제한된 분량으로 제시된 전체글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의 측면이 필자와 독자의 인식 상에 크게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 연구가설2 :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가설은 시간 격차에 따른 필자 관점의 변화와 관련된다. 필자의 관점은 시간과 입장의 바뀔에 따라 필자 관점1과 2로 구분된다. 이 가설에서는 이런 시간의 격차와 필자에서 독자로의 입장 바뀔의 경험이 크게 필자 관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구성하게 되지만, 자신의 글에 대한 기존의 구성 방식에 대한 틀을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글에 대한 인식의 틀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만 처음에 고정된 인식의 틀을 쉽사리 바꾸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처음에 자신의 자료를 공들여 쓰고 읽어서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추정값을 부여했을 것이다. 따라서 쉽사리 시간차에 의한 망각이나 독자 입장에서의 몇몇 읽기 경험이 문단 이동 인식과 관련된 애초의 직관력을 흐트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결과 및 교육상 의의

1. 연구결과 및 논의

형태나 통사 중심에서 벗어나 담화 중심의 언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일관된, 혹은 합의된 언어 이해나 표현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언어 이해나 표현의 과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연결의 구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언어 이해와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반응의 정형성을 다루어야 한다.

본고는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의 문제를 중심화 이론의 전이 양상을 적용하여 그 결과값을 이끌어내었다. 아울러 독자와 필자로 구분된 학습자들이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적절한 이유나 기준을 스스로 세워 보게 하였다. 이는 중심의미 이동값에 대한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 글에 대한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그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두 가지 연구가설에 따라 결과가 논의되는데, 양적 통계 접근에 기초

하기보다는 질적 통계 접근에 기초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본고가 담화 문법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유도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반응의 범위가 너무 넓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따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독자와 필자로 구분된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의 차이와 시간 격차에 따른 필자의 반응 변화를 일정한 도식적 양상에 기초하여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독자와 필자 관점에서 드러나는 의미연결의 양상을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 반 90명으로 구성된 학습자들이 독자와 필자로 나뉘어 실시한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결과값은 “-1, 0, 1”의 세 가지 지표로 구분된다. 가령 필자1 중심에서 접근한 결과 기준값을 “1”로 상정한다면, 독자 측면에서 나온 결과가 필자1과 거의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는 “1”로, 글의 맥락상 주요한 지점에서 한두 군데 차이가 있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중심 이동값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0”, 전체적으로 중심 이동값이 다른 경우는 “-1”로 설정하였다. 이는 필자2의 관점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이 지표는 합계 점수로도 이용된다.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글에 대한 의미연결의 합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단순화된 지표가 물론 학습자들의 반응 결과를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나온 이동 값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잣대가 필요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의미연결과 관련된 담화 문법의 정형성에 대한 논의를 일정 부분 전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개 받은 편의상 1-가, 1-나, 1-다, 1-라(반)로 부른다. 본고의 반 명칭과는 상관이 없으며, 이는 학습자들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서 조사자가 임의로 붙였다. 글1과 글2로 구분한 것은, 학습자들이 제출한 두 편을 글을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다.⁷⁾

7) 대다수 학습자들이 많이 선택한 글감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노벨상을 많이 받지 못하는 현상’,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 정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다수 글감으로 선택되었다. 본고에서 논의의 중심은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확인과 글 결

가령 <표 3>에서 A는 1-가(반)의 특정 학습자를, 그리고 B, C, D는 1-나, 1-다, 1-라(반)의 특정 학습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곧 1-가(반) 한 학습자가 자신의 글 두 편을 필자의 관점에서, 나머지 세 반(1-나, 1-다, 1-라) 세 명의 학습자가 각각 독자의 입장에서 여섯 편의 글을 읽고 문단 간 중심 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표 3> 1-가(반) 인식 결과

1-가(반)													
글1						합계	글2						합계
A	필자 관점		독자 관점				A	필자 관점		독자 관점			
	1차	2차	B	C	D			1차	2차	B	C	D	
1	1	-1	-1	-1	1	-1	1	1	1	0	1	0	3
2	1	0	0	0	1	2	2	1	0	0	-1	0	0
3	1	0	-1	-1	-1	-2	3	1	0	0	-1	-1	-1
4	1	-1	-1	-1	-1	-3	4	1	1	-1	1	-1	1
5	1	0	-1	1	0	1	5	1	0	0	1	-1	1
6	1	1	1	1	1	5	6	1	0	1	-1	0	1
7	1	0	-1	0	0	0	7	1	0	1	0	0	2
8	1	1	-1	1	0	2	8	1	1	1	1	0	4
9	1	0	1	-1	-1	0	9	1	1	-1	0	0	1
10							10						
11	1	0	1	0	0	2	11	1	1	0	-1	0	1
12	1	0	-1	0	-1	-1	12	1	0	0	0	1	2
13	1	1	1	1	0	4	13	1	0	0	0	-1	0
14	1	1	-1	-1	1	1	14	1	0	1	-1	0	1
15	1	0	0	0	1	2	15	1	-1	-1	-1	-1	-3
16	1	1	-1	0	1	2	16	1	1	-1	0	0	1
17	1	0	0	0	0	1	17	1	0	-1	-1	0	-1
18	1	0	-1	0	1	1	18	1	0	0	0	0	1
19	1	1	0	0	-1	1	19	1	1	-1	0	-1	0

과 논의에 있기 때문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 글감의 선택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1-가(반)													
글1						합계	글2						합계
A	필자 관점		독자 관점				A	필자 관점		독자 관점			
	1차	2차	B	C	D			1차	2차	B	C	D	
20							20						
21	1	1	-1	-1	-1	-1	21	1	0	-1	-1	0	-1
22	1	1	-1	0	1	2	22	1	1	-1	0	1	2
23	1	0	-1	-1	0	-1	23	1	0	1	-1	1	2
						0.81							0.81

합계는 독자와 필자의 관점에서 의미연결, 즉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결과의 수치를 합산해 놓은 것이다. 합계는 ‘-3~5’로 분포하는데, ‘-3’의 경우는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그 불일치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하며, ‘5’의 경우는 모두 일치를 드러낸 경우이다. 아울러 글1과 2의 ‘0.81’은 합계에 대한 평균값이다.

1-가(반)의 경우 10번과 20번 학습자가 학기 중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표 3>의 10번과 20번 칸이 모두 빈 칸으로 제시되었다. 글1의 경우 전체적으로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의미연결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6번 학습자의 경우이고, 정반대의 경우는 보이는 경우는 4번 학습자의 글이다. 글2의 경우는 전체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없고, 15번 학습자의 경우가 독자의 필자의 관점 모두에서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1-나(반) 인식 결과

1-나(반)													
글1						합계	글2						합계
B	필자 관점		독자 관점				B	필자 관점		독자 관점			
	1차	2차	A	C	D			1차	2차	A	C	D	
1	1	-1	-1	-1	-1	-3	1	1	0	0	-1	-1	-1
2	1	1	-1	0	0	1	2	1	-1	0	-1	0	-1
3	1	1	1	-1	-1	1	3	1	1	1	-1	0	2
4	1	1	0	0	-1	1	4	1	1	-1	-1	1	1
5	1	1	0	0	0	2	5	1	1	1	0	0	3

1-나(반)													
글1						합계	글2						합계
B	필자 관점		독자 관점				B	필자 관점		독자 관점			
	1차	2차	A	C	D			1차	2차	A	C	D	
6	1	1	0	0	0	2	6	1	1	0	1	0	3
7	1	0	0	-1	1	1	7	1	1	-1	-1	0	0
8	1	0	-1	-1	-1	-2	8	1	1	1	0	0	3
9	1	0	-1	0	0	0	9	1	1	0	0	0	2
10	1	1		0	-1	1	10	1	0		0	-1	0
11	1	1	1	0	-1	2	11	1	1	1	1	1	5
12	1	1	1	1	-1	3	12	1	0	1	0	0	2
13	1	0	0	0	-1	0	13	1	0	-1	-1	-1	-2
14	1	1	1	-1	-1	1	14	1	1	1	-1	1	3
15	1	1	0	0	1	3	15	1	1	0	0	1	3
16	1	0	0	0	-1	0	16	1	0	-1	-1	-1	-2
17	1	-1	-1	-1	-1	-3	17	1	-1	-1	-1	1	-1
18	1	1	1	1	0	4	18	1	1	0	0	0	2
19	1	-1	-1	-1	-1	-3	19	1	-1	0	0	0	0
20	1	0		0	1	2	20	1	1		1	1	4
21	1	-1	1	1	-1	1	21	1	-1	-1	0	-1	-2
22	1	0	0	0	0	1	22	1	0	-1	0	1	1
23	1	-1	0	-1	1	0	23	1	0	0	-1	-1	-1
						0.65							0.65

1-나(반)의 경우 독자 관점 A의 10번과 20번 학습자가 빠져 있는데, 이는 이 두 학생이 모두 학기 중에 전학을 갔기 때문이다. 이하 1-다, 1-라(반)도 마찬가지이다. 글1의 경우 독자와 필자의 관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모두 보이는 경우는 1, 17, 18번 학습자들의 글이다. 그에 비해 글2의 경우는 독자와 필자 모두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으며, 모두 합치를 보이는 경우는 11번 학습자의 글이다.

〈표 5〉 1-대(반) 인식 결과

1-대(반)													
글1						합계	글2						합계
C	필자 관점		독자 관점				C	필자 관점		독자 관점			
	1차	2차	A	B	D			1차	2차	A	B	D	
1	1	0	0	1	0	2	1	1	0	1	1	0	3
2	1	0	-1	0	-1	-1	2	1	1	0	0	-1	1
3	1	-1	-1	-1	0	-2	3	1	-1	0	-1	0	-1
4	1	1	0	0	-1	1	4	1	0	-1	1	0	1
5	1	0	0	1	-1	1	5	1	0	1	1	-1	2
6	1	1	0	0	0	2	6	1	1	1	1	0	4
7	1	0	-1	-1	0	-1	7	1	0	0	0	-1	0
8	1	1	-1	-1	0	0	8	1	1	0	-1	-1	0
9	1	1	-1	1	1	3	9	1	0	0	0	0	1
10	1	0		0	1	2	10	1	0		0	0	1
11	1	0	0	-1	-1	-1	11	1	0	0	-1	-1	-1
12	1	0	0	-1	-1	-1	12	1	0	1	-1	-1	0
13	1	0	0	-1	1	1	13	1	0	0	-1	0	0
14	1	0	1	0	1	3	14	1	1	-1	-1	0	0
15	1	0	-1	-1	-1	-2	15	1	-1	-1	-1	0	-2
16	1	0	0	-1	0	0	16	1	0	0	-1	-1	-1
17	1	0	-1	0	0	0	17	1	0	0	1	1	3
18	1	1	0	0	-1	1	18	1	0	1	0	0	2
19	1	1	0	-1	-1	0	19	1	0	-1	-1	-1	-2
20	1	-1		0	1	1	20	1	-1		0	0	0
21	1	1	1	0	0	3	21	1	1	0	-1	0	1
22	1	0	-1	-1	-1	-2	22	1	0	-1	-1	-1	-2
23	1	0	-1	0	-1	-1	23	1	1	-1	0	0	1
						0.39							0.48

1-대(반)의 경우는 네 반 중에서 의미연결의 합치도가 가장 글1과 2에서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 독자와 필자의 관점에서 의미연결 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3’의 경우나 모두 합치를 보이는 ‘5’의

경우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1-대(반)은 네 개 반 중에서 의미연결 일치도의 전체 평균이 '0.39'와 '0.48'로, 글1과 2 공히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6〉 1-대(반) 인식 결과

1-라(반)													
글1						합계	글2						합계
D	필자 관점		독자 관점				D	필자 관점		독자 관점			
	1차	2차	A	B	C			1차	2차	A	B	C	
1	1	0	-1	1	0	1	1	1	1	1	-1	0	2
2	1	0	-1	0	-1	-1	2	1	-1	0	-1	-1	-2
3	1	1	-1	-1	0	0	3	1	1	-1	-1	0	0
4	1	1	0	0	-1	1	4	1	1	-1	0	0	1
5	1	0	-1	-1	-1	-2	5	1	1	0	0	0	2
6	1	0	-1	1	0	1	6	1	-1	-1	0	-1	-2
7	1	1	1	1	-1	3	7	1	1	1	-1	-1	1
8	1	0	0	1	-1	1	8	1	1	-1	0	-1	0
9	1	0	-1	0	-1	-1	9	1	-1	-1	0	-1	-2
10	1	0		0	0	1	10	1	0		1	1	3
11	1	1	0	0	0	2	11	1	0	-1	0	0	0
12	1	1	0	0	1	3	12	1	1	0	0	1	3
13	1	1	0	1	0	3	13	1	0	0	0	0	1
14	1	1	1	0	0	3	14	1	1	1	0	1	4
15	1	1	0	1	0	3	15	1	0	0	1	0	2
16	1	0	0	-1	0	0	16	1	1	0	-1	0	1
17	1	1	0	0	-1	1	17	1	0	0	1	0	2
18	1	1	1	0	0	3	18	1	1	1	1	1	5
19	1	1	0	-1	0	1	19	1	1	-1	1	0	2
20	1	0		0	-1	0	20	1	1		1	0	3
21	1	1	1	0	1	4	21	1	0	-1	0	0	0
22	1	1	0	0	1	3	22	1	1	-1	-1	1	1
23	1	0	0	-1	0	0	23	1	0	-1	0	0	0
						1.30							1.17

1-라(반)의 경우는 네 반 중에서 의미연결의 합치도 평균이 두 글 모두에서 '1.30'과 '1.17'로 가장 높게 드러났다. 글1과 글2가 각각 주제나 내용상에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이 A4 용지 한 바닥에 유사한 제목 하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반간에 이와 같이 합치도의 평균이 높고 낮은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는다.

학습자들의 제시글과 필자와 독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문단 간 중심의 미 이동에 대한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상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하에서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의미연결에 대한 일치율 보인 글과 불일치율 보인 글을 통해 학습자들의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의 양상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라(반) 18번 학습자의 글은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모두 일치를 보인 예이다. 학습자가 선택한 글감은 '현대 인류가 당면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이다.⁸⁾ 총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문단 간에 의미연결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1-라(반) 18번 ○○○

현대인류는 현재 다양한 문제들과 당면해 있으며, 사뭇 심각한 수준이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는 환경오염 문제나 자원 고갈 같이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들도 많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단연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모든 인류가 같이 노력해야하는 문제이고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 석유를 태워 쓰면서 엄청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지국 온난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공장 폐수를 마구 유출하고, 엄청난 양의 생활 폐수를 만들어왔다. 그 외에도 농약의 남용, 기름 유출 사고, 엄청난 양의 자동차의 매년 등처럼 환경을 오염시켜 왔다. 이처럼 인류가 여태까지 저질러온 환경오염은 정말 엄청나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사람마저도 죽을 지경이다.

인류가 환경오염으로 받은 피해 또한 엄청나다. 석유의 무차별적인 사용으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서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대기의

8) 이하 두 편의 글은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정확한 사용에 상관없이 학습자들이 제출한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오염으로 각지에서 기관지 계통 질병이 늘어났다. 일본에서는 공장 폐수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이 미나마타병에 걸리고,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였다. 농약의 무차별적인 사용은 토지를 오염시켜 쓸 수 없는 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인류가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렇다면 인류는 환경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면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아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인류의 생존의 위해서도 환경오염을 줄여야 하고,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의 마음가짐이다. 환경 문제는 한 사람이나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폐수의 감소, 자동차 이용량의 감소 등이 있다. 씻을 때도 되도록 합성 세제를 쓰지 않고 비누로 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도리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도록 한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으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분리수거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대로 하지 않은 분리수거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매연도 정화를 시켜서 배출하도록 한다. 국가에서는 공장에 대한 규율을 엄격히 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해야 한다. 석유의 사용은 대기 오염이 심하며, 지국 온난화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류는 현재까지 대기, 물, 토양 등을 오염시켜 왔으며, 그 피해는 인류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등이 있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서 지금의 오염된 환경을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해지니 말이다.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삼단 구조의 전형적인 주장글이다. 첫째 문단이 서론, 둘째부터 다섯째까지가 본론, 여섯 번째 문단이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과 관련된 국어교육 전문가 2인의 평가는 ‘③→②→③→②→④’이다. 즉 완만한 이동, 유지, 완만한 이

동, 유지, 급격한 이동으로 중심의미가 전이된다고 보았다.

필자 관점과 독자 관점에서 일치로 보인 학습자들의 필자 및 독자 관점의 구체적인 내용의 예는 <표 7>과 같다. 독자 관점에서는 분량 상의 문제로 한 학습자만 선택하여 이유와 결과를 제시한다. 수행평가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학습자들이 문단 간 이동에 대해 나름의 기준과 평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표 7〉 필자와 독자 관점에서 일치를 보인 예

구분	내용	
필자 관점	이유	• 1~2(문단) : 1 문단은 환경 문제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중심내용이고 2 문단은 인류가 저질러온 환경오염이 중심내용이다. 이 때 문단에서 논하던 것을 2문단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소주제는 꽤 큰 차이를 보이므로 '완만한 이동(3)'이다. 2-3(문단) : 인류의 환경오염에서 그로 인한 피해로 중심 내용이 바뀌는 듯하지만, 2문단 끝에서 인류의 피해가 크다는 말을 하고 있어 문단 간에 중심의미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2)'되고 있다. 3-4(문단) : 환경오염의 피해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중심 내용의 변화는 크다. 하지만 4문단의 첫 부분에서 우리의 피해에 대한 언급을 해서 문단 간 연결이 비교적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완만한 이동 (3)'이다. 4-5(문단) : 둘 다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5 문단에서 4 문단에서 다루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유지(2)'이다. 5-6(문단) : 6문단에서 앞의 내용의 총정리로 갑자기 전환된다. 따라서 '급격한 이동(4)'이다.
	결과	③-②-③-②-④
독자 관점	이유	• ③ :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였는데, 뒷 문장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완만한 이동을 통해 제시되었다. ② : 인류가 환경오염으로 저지른 피해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③ : 다소 새로운 전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② : 앞의 문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며, 급격한 이동을 통해 결론 문단으로 종결되고 있다.
	결과	③-②-③-②-④

필자 관점의 학습자는 비교적 문단 간에 중심의미의 이동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급격한 이동은 본론과 결론 문단에만 적용하였다. 독자 관점의 학습자는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값을 먼저 제시한 후 그에 부합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필자 관점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결론 부분은 급격한

이동으로 처리하였다.

다음은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1-(가)번 4번 학습자의 글이다.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글감으로 다루었다. 총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단을 명확하게 구성하지 못했다. 4문단의 첫째 문장은 3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4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5문단의 첫째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전체글의 각 문단이 제대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1-(가)번 ○○○

현재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은 다양한 방면에서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는 먼저 노동력 문제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인구추세는 청년과 중년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나게 되고 저임금 경쟁, 사회, 문화적인 문제 등을 유발하여 2차, 3차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저축률 하락과 투자 감소로 인해, 자본을 기초로 하는 기업과 은행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률을 하락시켜 세계화에 뒤떨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사교육 열풍과 비용은 둘째, 셋째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는 국공립 양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있는 고가의 사립 양육 시설은 일반 서민으로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문화 또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산모와 임산부를 일반직원과 같게 취급한다. 야근과 출장, 그리고 회식까지, 정말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기업들이 조성하고 있다.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 시 모든 보

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대책 등 최근 발표한 내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출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교육비, 육아비용, 의료비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이가 일정 나이기 될 때까지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회식, 야근, 출장, 지나친 업무에 대한 거부권을 임산부에게 부여해 주어야 하며, 임산부가 직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안정한 직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출산 보너스와 출산 휴가는 물론이며, 출산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한 국공립 양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문단은 저출산의 문제, 4문단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 5~6문단은 해결 방안으로 구성된 글이다. 따라서 3과 4문단 사이, 4와 5문단 사이는 중심의미의 급격한 이동이나 완만한 이동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중심의미의 연속이나 유지로 볼 수 있는 구성 방식이다. 국어교육 전문가 2인의 평가는 ‘①→②→④→④→②’로 평가하였다. 필자와 독자의 관점에서 제시한 이유와 결과는 <표 8>와 같다. 나머지 독자 관점 두 가지도 결과는 필자 관점과 상이한 양상으로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상 생략한다.

〈표 8〉 필자와 독자 관점에서 불일치를 보인 예

구분	내용
필자 관점	이유 • 첫 문단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을 제기하는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한 근거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한 문단으로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므로 ①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과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심내용이 약간 달라지므로 ②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단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원인들을 분석한 것으로 중심의미가 저출산 문제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므로 ③이다. 다섯째 문단은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넘어온 글의 흐름이므로 역시 ③이다. 여섯 번째 문단은 역시 대책을 제시한 문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큰 흐름까지 일치하므로 ①이다.
	결과 ①-②-③-③-①

구분	내용	
독자 관점	이유	• 1문단은 서론이고 2~3문단은 본론, 4문단은 본론에서 결론으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5, 6문단은 결론이므로 1문단에서 2문단으로의 전개는 급격한 이동이다. 2, 3문단은 각각 우리나라 안, 밖의 문제점을 얘기하므로 2문단에서 3문단으로의 전개는 유지이다. 4문단 앞쪽 내용이 저출산의 실태를 보여주고 뒷부분이 해결의 필요성을 얘기하므로 3문단에서 4문단으로의 전개는 완만한 이동, 4문단에서 5문단으로의 전개는 연속이다. 5, 6문단도 모두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므로 연속이다.
	결과	④-②-③-①-①

필자 관점의 학습자는 전문가 2인이 제시한 이동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내용이 완전히 전환되는 부분을 완만한 이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독자 관점은 학습자는 1문단을 서론 문단으로 간주하고 2문단과 중심의미가 다른 급격한 이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 문단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어 문단 간 중심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상 네 반의 결과 및 몇몇 학습자들의 예를 바탕으로 연구가설과 연관 지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논의될 수 있다. 우선 “독자와 필자 간에는 공통된 의미연결 인식 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1은 독자와 필자 관점에서 나온 지표의 결과를 통해 그 양상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필자 관점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논의할 수 있는데, 필자 관점은 1과 2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필자 관점1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필자 관점2는 필자들이 독자가 되어서 여러 편의 글을 읽음으로써 애초 필자 관점보다는 그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에 필자의 애초 직관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글1과 2는 구분하지 않았다. <표 9>의 지표 ‘1’은 필자의 관점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0’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1’은 상이한 경우로 간주하고 그 수치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 9〉 독자 관점에서의 의미연결 인식 결과

반	독자 관점 횟수			독자 관점 비율(%)		
	1	0	-1	1	0	-1
1-가	31	46	49	24.6	36.5	38.9
1-나	29	55	50	21.6	41.0	37.3
1-다	21	58	55	15.7	43.3	41.0
1-라	20	58	56	14.9	43.3	41.8
합계	101	217	210	19.2	41.0	39.8

독자 관점에서의 횟수와 비율은 반 구분 없이 합계에 계산해 넣었다. 물론 학습자들이 산출한 글과 반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본 고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는 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1의 수용과 기각 여부를 일정한 통계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독자와 필자 간에 공통된 의미연결 인식 양상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1’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1/3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를 위한 검정통계량은

$$z = \frac{\hat{p} - p}{\sqrt{\frac{p(1-p)}{n}}} = \frac{0.192 - \frac{1}{3}}{\sqrt{\frac{\frac{1}{3}(1 - \frac{1}{3})}{528}}} = -6.87$$

이다. 검정통계량의 값이 z -검정 5% 유의수준인 -1.96 보다 작으므로 위의 가설은 기각된다. 즉 독자와 필자 간에 공통된 의미연결 인식 양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독자 관점 비율에서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이 ‘19.2%’ 정도이지만, 통계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쓴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독자 관점에서의 학습자들의 이해 반응 양상이 매우 상이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이해 반응의 결과가 글에 대한 부

정확한 이해와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슷한 주제 하에 A4 한 바닥의 짧은 분량으로 쓰여진 5~8개 문단으로 구성된 글에서 학습자들의 사이에 다양한 문단 이동 추정값이 나온다는 것은, 학습자들의 의미연결 혹은 글의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²는 필자1과 필자2의 관점에 따른 변화 양상을 건주어 봄으로써 가설의 기각과 수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필자1의 기준 관점을 ‘1’로 보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변화 정도에 따라 ‘1’, ‘0’, ‘-1’의 지표로 변화 정도를 가늠하였다. <표 10>은 그 결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반 별로 나누되 글1과 글2를 구분하지 않았다.

<표 10> 필자 관점에서의 변화 양상

반	필자 관점(1차 → 2차)	횟수	비율(%)
1-가	1 → 1	16	38.1
	1 → 0	23	61.9
	1 → -1	3	
1-나	1 → 1	23	50.0
	1 → 0	14	50.0
	1 → -1	9	
1-다	1 → 1	13	28.3
	1 → 0	28	71.7
	1 → -1	5	
1-라	1 → 1	13	28.3
	1 → 0	28	71.7
	1 → -1	5	

<표 9>에서 전체적으로 변화된 측면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1 → 0’의 변화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의 범주에 넣었다. 다만 반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1-나(반)의 경우는 변화되지 않은 것과 변화된 것의 비율이 1 : 1로 나타나는데 비해, 그 이외 반은 변화된

쪽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드러난다. 앞선 연구가설1의 논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수치를 반별로 따로 따지기보다는 합쳐서 유의미성을 논의한다.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1 → 0’, ‘1 → -1’로 답한 비율이 전체의 1/2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1 → 0’, ‘1 → -1’로 답한 비율의 추정치는 $\hat{p} = \frac{115}{180} = 0.64$ 이다. 이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구하면

$$z = \frac{\hat{p} - p}{\sqrt{\frac{p(1-p)}{n}}} = \frac{0.64 - 0.5}{\sqrt{\frac{0.64(1-0.64)}{180}}} = 3.91$$

이다. 검정통계량의 값이 z -검정 5% 유의수준인 1.96 보다 크므로 위의 가설은 기각된다. 즉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에는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다수의 학습자들의 일정한 시간차와 관점의 전환에 의해 애초에 자신이 썼던 글에 대해 인식의 폭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 학습자들은 필자 관점1에서보다는 필자 관점2에서 보다 글에 부합하는 의미연결의 인식 결과를 보여주었다.⁹⁾

2. 교육상 의의

그간 국어 교육 안팎에서 글의 총체적 틀이라 할 수 있는 맥락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들이 정작 학교현장에서 글의 맥락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는 거

9) 본 조사에서의 주요한 논의 항목은 아니었지만, 수행평가 채점시에 필자 관점1보다는 필자 관점2에서 보다 정확한 문단 간 중심이미 이동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독자와 필자 간에 드러나는 의미연결, 곧 전체글의 맥락에 대한 표면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까지 논의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리가 있었다. 읽거나 쓰기 교육에서 맥락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정작 어떤 식으로 그것을 표면화시키고 아울러 재구성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¹⁰⁾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상정하고 글 맥락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의미연결을 표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의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두 가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의 논의로부터 몇몇 교육상 의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글의 내적 맥락, 곧 의미연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독자와 필자로 나누어 실시된 조사결과에서 학습자들은 독자와 필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이를 드러냈다. 학습자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읽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우선하여 한 편의 글을 주제와 짜임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은 쓰기뿐만 아니라 읽기에서도 주요한 사고 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편의 짧은 주장글에 대한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의 모습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글의 관점에서 문단 간의 중심의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전체글의 의미연결인 글의 내적 맥락에 대한 학습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본고의 조사가 더 많은 피험자들과 대상글을 확보해야겠지만, 일단 조사결과상에서 학습자들의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짧은 글에서조차도 함의를 보이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문단 중심의 읽기 교육이 글의 의미연결인 내적 맥락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둘째, 시간 격차에 따른 필자의 인식 변화이다. 조사결과에서 학습자

10)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안되어, 맥락을 각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에 지식, 기능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제시된 맥락은 상당 부분 언어 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고에서 지향하는 언어 내적인 맥락과는 차이가 있다. 거기에서는 맥락을 다루되 거시적인 영역만 거론하고 언어 내적 맥락인 의미연결의 문제는 내용 영역 속에서 다루어 균형상에 문제를 보이고 있다.

들은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일정한 시간 격차에 따른 거듭읽기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더불어 유사 주제와 목적을 가진 여러 편의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글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한 인식의 틀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조사결과는 보여주었다.

학습자들은 필자와 독자의 입장을 바꾸어 가며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글에 대한 전체 맥락을 더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쓴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을 뿐더러, 이를 일정한 기준 잣대를 통해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에서 이상의 과정들은 학습자 자신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되짚어보기(feedback)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을 일정한 시간 격차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거듭 읽고, 아울러 동료 학습자들의 글을 일정한 평가 잣대를 통해 읽어 감으로써 아울러 자신의 글에 대한 안목도 키울 수 있었다. 나아가 읽기와 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¹¹⁾

IV. 마무리

본고는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글에 대한 의미연결, 곧 글의 내적 맥락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의미연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11) 본고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문이나 교과서에 실린 전문가들의 글을 통해 유사한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우선 전문가의 글에 주석이 들었고 거기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동료 학습자들의 글을 대하면서는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습자들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몇몇 학습자들은 동료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랄하게 꼬집기도 하고, 나아가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대상으로 고쳐쓰기를 해 보자는 의견도 자유스럽게 나왔다.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가설1인 “독자와 필자 간에는 공통된 의미연결 인식 양상이 있을 것이다”는 통계 수치상으로 기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독자와 필자로 구분되어 실시된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는 일정 조건하에 이루어진 전체글의 맥락 파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가설2인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연구가설 역시 통계 수치상으로 기각되었다. 학습자들은 시간 격차에 따른 필자 관점에 상이한 변화를 드러내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독자의 입장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읽고 인식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의미연결이나 맥락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서의 시론적 성격을 지닌다. 보다 정확한 조사방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다양한 피험자와 대상글을 확보하여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야 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만 그간 국어교육 현장에서 의미연결과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방법과 결과는 그 출발선에서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 본 논문은 2009. 10. 28. 투고되었으며, 2009.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김미경(2003), “중심화 이론에서 본 한국어 논항의 생략현상”, 『언어』 28권 1호, 한국언어학회, pp.29~49.
- 김지홍(2007),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각”, 『국어문학』 42호, 전북대학교
- 김지홍(2008), “언어 산출과 처리의 심리학적 과정”, 한글학회 진주지회 발표문.
- 박철우(2002), “국어 서사문 담화에서의 중심 전이 과정과 응집성에 관한 고찰”, 『어학연구』 38권 3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pp.851~877.
- 서종훈(2008), “수형도를 활용한 문단 관계 인식 양상”, 『국어 교육』 125호, 한국어교육학회, pp.193~228.
- 손중동(1993), 英·韓 文段展開 認知構造의 比較分析,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재기(2006), “맥락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제3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99~128.
- 최명환(2008), “담문의 진단 전략”,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pp.290~292.
- 황미향(2009), “국어과 교수·학습 개선 방안”, 『청람어문교육』 제39집, 청람어문교육학회, 343~372.
- Halliday, M.A.K. & Hasan, R.(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Oxford University press.
- Walker, Marilyn A. Joshi, Aravind K. and Prince, Ellen F.(1998), *Centering Theory in Discourse*, Calrendon press.

<초록>

독자와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 양상 연구

-특목고 1학년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인식을 중심으로-

서종훈

본고는 의미연결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문단 간 중심의미 이동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루었다. 두 가지 가설을 세워 그것의 결과를 일정한 통계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교육적 의의를 구하였다.

두 가지 가설은 “독자와 필자 간에는 공통된 의미연결 인식 양상이 있을 것이다”와 “시간차에 따른 필자의 의미연결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이다. 전자는 통계 수치상으로 기각되어 학습자들 간의 의미연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후자도 역시 기각되어 필자 관점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본고는 의미연결에 대한 시론적 성격의 논의이다. 보다 정확한 연구방법을 구안하고, 더 많은 피험자와 대상글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어교육 현장에서 의미연결에 대한 실험적 연구조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의미연결, 맥락, 문단, 독자와 필자

<Abstract>

A Study of Coherence Aspect in Reader and Writer

—Special Highschool 1st graders' cases in their cognition between paragraphs—

Seo, Jong-hoon

This paper treated cognition of the center meaning shift between paragraphs. The problem is related coherence. Therefore I construct two hypotheses, identify a result through the statistical procedures, and look for an education significance.

The first hypothesis is a common coherence cognition between reader and writer. The second hypothesis is a nothing change in coherence cognition of writer through time gap. The former is rejected, also the latter does.

The thesis is a sketch study about coherence. The correct study method, many subjects and texts leave with limits. But there is a significance that an experimentation study of coherence is the beginning in the spot korean education.

[Key words] coherence, context, paragraph, reader and writer